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1. 25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원/엔 환율 변화와 전망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①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안전 통화인 엔화 매입 증가로 엔화 강세
- 장기금리 : 안전자산인 일본국채 매입수요 증가로 장기금리 하락

구분	11.25(월)	11.26(화)	11.27(수)	11.28(목)	11.29(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2.40	102.03	101.37	101.50	101.68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48.18	1,044.57	1,046.49	1,037.76	1,038.17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5,619.13	15,515.24	15,449.63	15,717.12	15,661.87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40	0.615	0.605	0.600	0.60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3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5%, 연율 1.9%로 4분기 연속 플러스
-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상회
- 2013년 10월 무역수지는 연료수입 증가로 적자폭이 1.1조 엔으로 크게 확대
*대한국 무역수지는 1.3천억 엔 흑자로 흑자폭이 축소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			3.8			1.9(P)			-	
수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61	
수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72	
대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4.64	
대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3.29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479			-	
대한국 투자	(40)	7.7			9.1			8.6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0.2	
실업률(%)	(4.4)	4.2	4.3	4.1	4.1	4.1	3.9	3.8	4.1	4.0	4.0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5.9	-	
엔화 환율	對미달러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97.9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1,080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12.8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0.59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1차 속보치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글로벌화와 일본경제의 대응력 : 제5회 도쿄대·일본은행 공동주최 콘퍼런스논문』
일본은행, 11월29일

*출처:http://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13/data/rell131128a1.pdf

② 주간경제이슈 : 원/엔 환율 변화와 전망

□ 원·엔 실효환율 역전

- 닷케이신문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의 실효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역전
 - 엔화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한 반면, 원화는 견실한 한국경제의 기반으로 매입세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닷케이신문에서 보도
 - 통화의 종합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실효환율(닛케이통화인덱스 2008년=100)로 보면, 11월 26일 엔과 원이 각각 100.5 원, 101.6으로, 11월 20일부터 5일 연속 엔이 원을 하회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지속되었던 원화에 대한 엔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
- 2008년 9월 리먼 쇼크 이후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인 대응으로, 안전통화인 엔화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승함에 따라 원, 엔간 실효환율 격차도 확대

□ 원·엔 역전의 원인

- 원화에 대한 엔고 현상이 해소된 원인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있음
 - 일본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엔저가 지속
 - 한국은 1~10월 기간 중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60% 증가, 실수요면에서 원화의 매입세가 강하기 때문임
- 특히, 한국의 주가추이를 보면, 금년 7월 이후 외국인의 순매입초과가 계속됨에 따라 원화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하고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화에 대한 매입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

□ 한·일 산업에의 영향

- 엔이 원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음
 - 2008년 이후 원저 하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도요자동차 등 일본기업들을 위협해왔으나, 한·일간 실효환율이 역전되어 한국기업들의 수출공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일본의 반도체 업계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2012년 2월 회사개생법 적용을 신청했던 D램 업체 엘피다메모리가 금년 3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히로시마현의 주력공장도 높은 가동율을 유지

- 한국기업들은 일부 업종에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계전기장비와 석유화학업종은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평균채산환율(수출 기업의 채산성 확보에 필요한 환율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실적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자동차부품, 전자통신기기 등은 여전히 흑자
-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해외생산비율이 높아 환율변동에 대한 내성이 강한 편
- 철강분야는 포스코 등 한국 업체도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으나, 수급영향이 큰 것으로 닛케이신문에서 보도

□ 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의 한일 비교

- 실질실효환율(실효환율에서 물가변동 영향을 제거한 환율)로 보면, 자동차 등 수출용 기계는 그동안 일본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닛케이신문은 분석(2013.9.23일자)
- 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은 산업별 생산비용 차이를 가미한 환율로서 명목환율이 변화하더라도 생산비가 저하되면 실질환율이 떨어짐
- 자동차산업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고 기간 중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이 코스트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실질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엔고 국면에서도 ‘실질환율 하락에 의한 수출증가→수익증가’를 실현
- 반면, 전기기계 산업에서는 일본기업들이 뒤늦게나마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나, 한국기업과의 실질환율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다는 분석

□ 엔저는 가속될 전망

- 2013년 11월 25일 도쿄시장에서 달러당 엔화환율이 102엔대에 육박,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 엔 매도를 부추기는 단·중·장기의 재료가 모두 가세함으로써 엔저와 고주가를 연쇄시키는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어 향후 엔저가 가속화될 전망
- 단기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금융완화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투자가들의 심리를 개선시킴으로써, 주식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전향적인 반면, 리스크가 적은 엔을 매도케 하는 방향으로 작용
- 중기적인 요인으로 내년 봄 이후 미·일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11월 25일 강연에서 만약 2년 내 2%의 물가상승 시나리오가 무너지게 되면, 필요에 따라 추가 완화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장기적인 요인은 일본의 무역적자로 금년 10월까지 1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은 상반기에 과거 최대 적자폭을 기록
-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수입기업들이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엔 매도를 늘림에 따라 엔저가 촉진

3 경제정책동향

□ 미·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 경제산업성도 지원

-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일본의 도쿄엘렉트론 등 반도체 관련 20여개 기업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차세대 양산기술을 공동개발키로 함
 - 현행 메모리보다 기억용량을 10배가량 높여, 전자기기의 소비전력을 약 2/3로 줄이게 되는데, 이르면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감
 -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일본의 소재·장치 업체들이 협력하여 차세대 메모리 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
- 개발 대상은 MRAM이라 불리는 차세대메모리인데, 도시바는 한국 SK하이닉스와 공동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미·일 기업연합은 국내외 반도체 관련업체들에게 프로젝트 참가를 요청하여 MRAM의 기반기술을 조기에 확립할 방침
- 공동개발에는 엘피다메모리를 인수한 마이크론 외에 반도체 제조장치분야에서 세계 3위인 도쿄엘렉트론, 반도체 웨이퍼 분야에서 1위인 신에츠화학공업, 반도체업체 르네사스엘렉트로닉스, 히타치제작소 등이 참가
 - 각 업체들이 도호쿠대학에 연구원들을 파견하고 수십 명 규모로 내년부터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
- 참여 업체들은 소재와 회로의 구조,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기초기술을 공유하여 개발속도를 높이고 양산화를 목표
 - 마이크론은 엘피다의 히로시마공장에서 생산을 검토 중인데, MRAM은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아 에너지절약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DRAM의 경우, 전자회로를 미세화하여 기억용량을 늘려왔는데, 최첨단제품은 회로의 선폭이 20나노(나노 10억분의 1)미터대로, 그 이상 좁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NRAM이 유력시되고 있음
-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메모리양산기술의 공동개발에 착수한 것은 일본기업들이 제조 장치와 소재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마이크론의 엘피다 매수 등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의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연구개발이 공동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용
- 모바일기기와 차세대기기의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MRAM기술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경제산업성도 연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

4 일본기업동향

□ 파나소닉, 반도체공장 매각으로 구조개혁 일단락

- 파나소닉이 반도체 주력공장 3개를 분사하여 이스라엘 기업에게 과반을 매각하고 해외 반도체공장도 싱가포르 기업과 매각교섭에 들어감으로써, 플라즈마 TV 생산종료와 스마트폰사업의 축소 결정 등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구조개혁에 일단락을 짓게 됨
- 매각대상은 도야마현과 니가타현에 있는 3개의 반도체 전공정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장치 등에 대한 거액의 투자가 필요
 - 이르면 금년에 분사하여 이스라엘의 반도체수탁생산회사(파운드리), 타워제즈로부터 출자를 받아들일 예정으로, 3개 공장의 사업 가치는 100억 엔 전후로 추정
- 3개 공장은 파나소닉제품용 반도체 생산에 주력해 왔었으나, 타워제즈가 독자적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공장가동율을 향상시킬 계획
 - 파나소닉은 일부 출자를 남겨놓고 자동차와 산업기기용 등 자사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을 위탁하는 동시에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 유지를 요구할 방침
 - 3개 공장 2,500여명 종업원의 대부분은 신규 회사에 고용을 승계하고, 남은 인원은 다른 부문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
 -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있는 반도체조립공장도 싱가포르의 반도체업체와 매각 및 출자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 파나소닉의 반도체사업 매출액은 2013년에 1,840억 엔, 영업 손실은 205억 엔이나, 향후 성장분야인 주택·전기설비 등 주택분야와 차대기기 등 자동차분야의 호조로, 2014년의 손익 전망을 당초 예상치의 2배인 1000억 엔의 흑자로 상향조정
- 파나소닉은 2016년까지 부진한 산업의 적자를 모두 해소할 방침인데, 이미 플라즈마TV사업과 개인용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
 - 국내외 약 14,000명의 종업원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며, 디지털 가전용 시스템LSI(대규모집적회로)은 후지츠와 통합하기로 합의

□ 일본 산업용 로봇 업체들의 중국진출 확대

- 중국에서 인건비 급등으로 인력절감을 위한 로봇 투자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 산업용 로봇 업체들의 중국진출이 확대
 - 가와사키중공업은 100억 엔을 투자하여 산업용 로봇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2015년 4월, 연간 2,000대 규모로 생산을 개시하여 현지 자동차업체 등에 판매하기로 함
 - 세이코엡슨은 정밀부품의 조립에 사용되는 수평다관절로봇 제조공정을 중국에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
- 가와사키중공업은 강소성 소주시에 유압기기공장 부지 내에 공장을 신설할 예정인데, 연면적 10,000평방미터로 주로 자동차 용접 및 부품 반송에 사용되는 로봇을 생산, 생산규모는 2017년까지 10,000만대 정도로 확대할 계획
- 세이코엡슨은 정밀부품의 조립에 사용되는 수평다관절로봇 생산을 나가노현 공장에서 중국 심천 공장으로 이관
 - 동사의 현재 생산대수는 연간 4,000대로, 일본과 중국에서 절반씩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특수품을 제외한 모든 로봇을 2년 내에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
 - 생산이관으로 인건비와 조달비를 포함한 생산비용을 최대 30% 줄여 유럽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중국에서는 인건비 급등과 인력난으로 향후 로봇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인데, 가와사키중공업과 세이코엡슨 외에도 야스카와전기와 후지코시(不二越) 등도 중국에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5 한국관련위치

□ 2조 엔의 LNG선 특수를 놓고 한·일 수주경쟁이 예상

- 액화천연가스(LNG)의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일본 해운회사들이 LNG수송선을 대량 발주할 계획인데 건조비는 2조 엔 규모에 달할 전망
 - 2020년까지 현재보다 50% 늘어난 90척을 발주할 계획인데, 북미산 셰일가스의 대일수출 개시 외에, 호주 등에서 LNG의 대형생산설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대량발주의 배경
 - 한·중 기업들에 눌러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조선업체들로서는 만회할 수 있는 찬스라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은 원전 중단으로 전력회사들이 화력발전용 LNG 조달을 늘리고 있음
 - 북미산 셰일가스는 이르면 2017년에 대일 수출이 개시되는 외에, 호주와 아프리카 모잠비크만에서도 일본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천연가스개발이 진행 중
-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수입량도 증가함에 따라, 2010년에 2억 톤을 넘었던 세계 LNG 수송량이 2020년에는 약 60% 증가한 3억 6,000만 톤에 달할 전망
- 이 같은 대량발주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기업에 눌러 시장점유율이 떨어져왔던 일본의 조선기업들에게 순풍으로 작용
 - LNG수송선의 적당 가격은 약 200억으로 일반 선박의 거의 배에 가까운데, 90척을 건조할 경우 건조비가 2조 엔으로 추정
-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한국기업들의 저가공세에 눌러있는 상황이나, 우수한 에너지절약 성능과 효율적인 수송능력을 내세워 LNG수송선의 수주획득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 가와사키중공업은 LNG선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하여 2017년에 실용화할 예정인데, 선체 크기를 바꾸지 않고 LNG탱크를 개량하여 수송연료비 등의 비용절감효과를 높임으로써 종래보다 적재량을 10%가까이 늘릴 계획
 - IHI와 JFE의 통합회사인 JMU도 IHI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 등에서 뛰어난 수송선의 공동수주회사를 설립하여, 대량 수주가 가능한 체제를 정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조 엔의 특수를 놓고 한국기업을 포함한 수주경합이 치열해질 전망